

# 한국언어정보학회 소 식 제 11 호 (1998년 4월)

KSLI Newsletter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No. 11, April 1998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내  
전화: 0335-30-4293/4286 전송: 0335-30-4074 e-mail: hrchae@maincc.hufs.ac.kr

## ㉔ 언어학 정보 2권 1호 원고 모집

우리 모임의 학회지 언어학 정보 (ISSN: 1226-7430) 2권 1호가 1998년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오는 4월 30일까지 편집인 이현우 교수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32-860-7857 (O), 032-816-6795 (H), hylee@dragon.inha.ac.kr). 원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Linguistic Inquiry 24권 1호 (1993년 겨울호) 185-197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회가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학회지 발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회지 발간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높은 수준의 책을 계속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 ㉔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회비는 일반 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 회원은 3,000원입니다. 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이하원, 계좌번호: 132-20-202434, 제일은행 한국외국어대 지점).

## ㉔ 4월 18일 모임 발표자의 논문 초록

### Resolving Honorific Pronouns in Dialogue on the Basis of Social Status Information

이 동 영 (서울대학교)

An honorific pronoun occurring in an utterance is used to refer to a person whose social status is higher than that of the utterance's speaker and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the addressee. Since only one third-person honorific pronoun exists, the referent of the honorific pronoun cannot be the speaker or the addressee of the utterance in which the pronoun occurs.

The fact that the referent of the NP to which an honorific morpheme attaches is honored by a speaker and that the referent of an honorific pronoun is also honored by a speaker may tempt us to adopt the method of selecting the referent of the NP to which an honorific morpheme attaches as the referent of an honorific pronoun. Although this simple method based on the surface form of an NP is effective when a dialogue is held between two fixed persons, it is inadequate when a dialogue is held among more than two persons.

In this talk we show that the use of a relative order of social status among the people involved in a dialogue leads to a correct resolution of honorific pronouns occurring in the dialogue. In addition, we show how to implement this method of resolving honorific pronouns on a computer, using the Prolog programming language.

**독-한 명사구 기계번역 연구**  
최 승 권 (SERI) /이 민 행 (연세대학교)

국내에서의 기계번역 시스템은 영어나 일본어와 관련되어 상품화되거나 혹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반면 ([Kim et.al, 93], [시스템공학연구소, 96]) 독일어와 관련해서는 언어학적으로 이론적인 토대가 형성되고 ([Lee, 92], [이민행, 94]) 한독 자동번역에 대한 프로토타입 수준이 마련되고 있지만 ([Choi, 95], [최승권, 95]) 아직 본격적인 완성품으로서의 독한 기계번역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CAT2 ([Sharp, 88]) 다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독-한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두 언어간의 언어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구조의 차이와 언어정보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한 명사구 자동번역을 위한 효율적인 번역지식 모델 구축과 번역실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번역실험은 수집된 독일어 명사구 코퍼스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코퍼스는 독일어 명사구의 균형화된 한국어 생성을 위하여 독일어 사전과 신문 사설로부터 구축하였는데 코퍼스의 총 규모는 2330개의 독일어 명사구였고 해당 자료는 DUDEN 독일어 사전 (1400개 명사구), DER SPIEGEL 37호-1996년 사설 (680개 명사구), DIE ZEIT 37호-1996년 사설 (250개 명사구)였다. 각 독일어 명사구는 평균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었고 전체적인 번역성공률은 83%에 달하였고 성공한 명사구들은 번역이해도를 6단계(0-5)로 나눌 때 이해도 3 (텍스트 전체의 의미는 파악이 가능하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의 의미는 불명확한 곳이 더러 있다) 이상에 달하였다.

다음의 비교표는 독일어 원문에 대한 전문 번역가의 번역과 독-한 명사구 기계번역시스템의 번역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독일어 원문                            | 전문 번역가 번역    | 기계번역               |
|-----------------------------------|--------------|--------------------|
| fuehrende Industrielaender        | 주도적 선진국      | 주도하는 산업국가들         |
| fremde Arbeitskraft               | 외국인 노동력      | 외국의 노동력<br>생소한 노동력 |
| eine staatlich beschlossene Sache |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 | 국가적 결정된 물건         |
| der vereinbarte offizielle Start  | 합의된 공식 출발    | 합의된 공식적 출발         |

위의 비교표에서 독-한 명사구 기계번역시스템이 번역한 결과에서 두 개의 번역결과가 나온 이유는 번역과정중에 분석결과나 변환결과가 한 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들을 생성한 결과이다.

<참고문헌>

[시스템공학연구소, 96] 시스템공학연구소. 영한 한영 텍스트 자동 번역 기술 개발. 시스템공학연구소, 1996.  
 [이민행, 94] 이민행. 국어와 독일어의 대조통사론과 기계번역. 독일문학 35권 1호 통권52집: 480-507, 1994.  
 [최승권, 95] 최승권. 한국어-독일어 자동번역, 독일문학 37권 1호, 1995.  
 [Choi, 95] Choi, S.K. Unifikationsbasierte Maschinelleuebersetzung mit Koreanisch als Quellsprache, Dissertation, Saarland, Germany, 1995.  
 [Grimshaw, 91] J. Grimshaw. Extended projection. Brandeis University, Waltham MA 02254, ms., 1991.  
 [Kim et. al, 93] Kim, Y.T., H.G. Lee, J.H. Yang, B.R. Seo, N.R. Kim, E.K. Im & K.W. Kim. Korean-English Machine Translation.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tatus Report, Seoul Nat'l Univ/IBM Korea. Seoul, 1993.  
 [Lee, 92] Lee, M.H. Kontrastive Syntax und maschinelle Sprachanalyse im Rahmen einer Unifikationsgrammatik: Untersuchungen zu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eter Lang, 1992.  
 [Sharp, 88] Sharp, R. CAT2-Implementing a Formalism for Multi-Lingual MT.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etical & Methodological Issues in Machine Translation of Natural Language,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1988.

## Double Quantifier Biding in Double-*if* Clauses

윤 영 은 (이화여자대학교)

In this presentation, I will propose that the so-called “double-bind” problem in the quantifier /variable-binding model of anaphora, which was observed by Barker (1997), does not really pose as a problem for none of the three approaches to anaphora, namely, E-type theories,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DRT), and Dynamic semantics. The so-called “conjunctive paraphrase” analysis to the problematic examples involving intra-sentential anaphoric chains, which was argued against by Barker (1997), will be supported with the independently-motivated evidence that a variable within a proposition must be quantified over by one and the only quantifier. As for problematic examples involving inter-sentential anaphoric chains, I will show that these cases can be accounted for combining the “conjunctive paraphrase” analysis with mechanisms such as “modal subordination” and “anaphoric accommodation” (Roberts 1989, 1995; Yoon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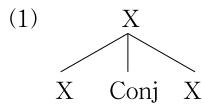
<참고 문헌>

Barker, S. J. 1997. “E-Type Pronouns, DRT, Dynamic Semantics and the Quantifier/Variable-Binding Model,”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2, 195-228.  
 Roberts, C. 1989. “Modal Subordination and Pronominal Anaphora in Discourse,”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683-721.  
 Roberts, C. 1995. “Domain Restriction in Dynamic Semantics,” in Bach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661-700.  
 Yoon, Y. 1997. “Presuppositional and Anaphoric Accommodations,”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3.4, 83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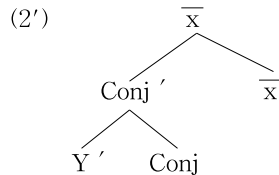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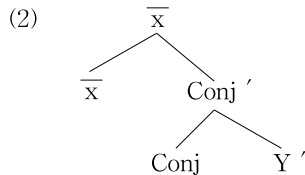
### 부가어 부착으로서의 대등접속 (Coordination as Adjunction)

노 용 균 (충남대학교)

접속사 *and*, *or*, *but* 등을 수반하는 대등접속구성의 통사구조는 명제논리의 연결운용자(conjunction operator)나 이접운용자(disjunction operator)가 피운용항 두 개와 결합하여 복합명제를 이루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연언어의 여러 구성에서 위의 접속사들이 논리의 연결-이접 운용자들과 다른 성질을 노정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Schmerling(1975), Culicover and Jackendoff(1997).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연언어의 모든 대등접속의 통사구조를 (2)나 그 역상인 (2')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i) 표현들의 통사구조는 의미구조에 대응하기만 하면 되며 의미구조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ii) 위 (1)의 구조를 버리고 (2)의 구조를 취하면 자연언어 통사부분이 간소화된다; (iii) 대등접속은 부가어부착(adjunction)의 한 예로 봄으로써 Ross(1967)의 대등접속구성 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과 부가어 섬 제약(Adjunct Island Constraint)이 동일한 제약이 되어 버린다는 장점이 있다; (iv) Goldsmith(1985)의 CSC에 대한 예외와 Engdahl(1982)의 “기생하는 틈” 사이의 잉여성(redundancy)이 제거된다.

이 분석에서는 머리가 선행하는(head initial) 언어에서의 두 번째 접속항과 머리가 뒤따르는 (head-final) 언어에서의 첫 번째 접속항이, 머리인 어휘범주 Conj의 보충어다. 두 접속항의 범주가 동일하다는 전통적인 관찰은 Sag et al. (1985)의 자료 이외에도 아래 자료에 의해서도 옳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4)는 Culicover and Jackendoff 1997에서 논증 없이 [NP and S]라는 구조를 부여 받는다.)

- (3) [s[s Would you like coffee][conj'[conj or] [[n"[n'[n tea]]]]  
 (4) [n" [m" One more][n' can of beer][conj' [conj and] [s I am leaving]]]

이런 예들의 존재는 발표자의 제안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론을 약화시킨다. 전통적인 분석에 비해 이 새로운 분석이 갖는 추가적인 장점은 접속사가 어떤 종류의 구와 결합하느냐에 있어서 낱말마다 다를 수 있음이 머리가 보충어로 어떤 범주들을 취하느냐에 있어서 낱말마다 다를 수 있음을 포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착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 ☐ 1998학년도 1학기 연구 발표회 계획 (한국언어정보학회): 제 36호

일시: 3/21, 4/18, 5/16, 6/13 (토) 9:30 a.m.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발표 시간: 기획 논문/강의--60분, 일반 논문--40분

### 3월 21일 (토), 9:30 a.m.

기획: 전영철 (서울대)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of Genericity"

일반: 이민행 (연세대) "독일어의 초점 통사론과 초점 불변화사 이동 이론"

일반: 강범모 (고려대) "컴퓨터의, 컴퓨터에 의한 텍스트 장르 분석"

### 4월 18일 (토), 9:30 a.m.

기획: 이동영 (서울대) "Resolving Honorific Pronouns in Dialogue on the Basis of Social Status Information"

일반: 최승권/이민행 (SERI/연세대) "독-한 명사구 기계번역 연구"

일반: 윤영은 (이화여대) "Double Quantifier Binding in Double-*if* Clauses"

일반: 노용균 (충남대) "부가어 부착으로서의 대등접속 (Coordination as Adjunction)"

### 5월 16일 (토), 9:30 a.m.

기획: 채희락 (한국외대) "Complementation vs. Modification (in Korean)"

일반: 김종복 (경희대) "Are There Gapless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일반: 윤재학 (경희대) "Korean Exceptives and Their Implications"

일반: 김용범 (광운대) "특수조사 -토의 의미와 강조"

### 6월 13일 (토), 9:30 a.m.

일반: 남승호 (서울대)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일반: 김용환 (양산전문대) "명사구와 시간 부사구의 상호 작용"

일반: 이현우 (인하대) TBA

일반: 이정민 (서울대) TBA

# 대우재단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권 발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5매),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발표 및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발표자와 참석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가 OHP 사용을 원할 경우 총무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